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양식과 담론 분석 연구

*Lee Jang-hwan,
Lee Seon-min and Go Seong-hun,
Kyunghee University*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 사회는 급속한 세계화와 세방화(glocalization)의 영향과 위력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짐과 동시에 초국적인 대중문화들이 활발히 소비·수용되는 탈전통화(detraditionalization)와 탈경계화, 그리고 문화적 월경(cultural border-crossing) 현상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드(미국 드라마), 일드(일본 드라마) 속에 담기는 문화적 혼종성과 탈지역성, 그리고 매우 다양한 다문화주의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을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텔레비전 역시 아시아 안의 타자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러브 인 아시아>와 같은 프로그램과 다국적, 다인종으로 구성된 출연진들이 한국인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을 토론하는 토크쇼인 <미녀들의 수다>가 있다. 또한 신문에서도 <동아시아칼럼>,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아시아, 아시아 人> 기획연재를 통해 동아시아 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이용해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현상과 부상에 따른 많은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 사례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작년 11월 현재 104만 6,18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한국인구의 2%를 넘는 수치라고 법무부의 통계는 밝히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 중국 등지의 주민들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현재 결혼하는 10명 중 최소한 1명 이상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이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결혼한 농촌 총각의 35.7%가 외국인 신부를 맞을 정도로 국제결혼과 혼혈자녀가 급증,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으로 이제 단일민족 공동체 개념에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급속 이행하고 있다. 혼혈학생도 초등생만 5,332명에 달하지만 집단 따돌림과 학교 부적응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최근 수도권 지역 혼혈청소년 실태조사에서 32%만이 “나는 한국인”이라고 대답했고, 대다수가 이민을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최근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중적인 관심을 끈 사건으로는 하인스 위드의 방한을 전후한 한국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 및 미디어 담론들의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미국 프로 풋볼리그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스타로, 한국계 혼혈인이다. 위드는 미디어에 인종주의의 뿌리가 매우 깊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인 소수자로서의 한계와 차별의 벽을 돌파한 매우 입지적인 인물로 미디어에 의해 그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디어 연구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내리기, 그리고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수준의 갈등과 문제점들에 대한 정치한 그리고 개입적인 분석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이상길·안지현, 2007; 윤선희, 2006).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며, 나아가 급속도로 탈지역화와 세계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한국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사용하고, 이러한 담론 속에서 생산되는 외국인/타자에 대한 재현 양식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2)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이 연구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재현된 한국의 인종주의, 순혈주의, 민족주의 등에 관한 기존이론 및 연구들을 검토하고, 성숙한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과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차이와 정체성 정치학”과 문화연구: 본질주의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서구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정치학인 다문화주의는 정치·사회문화 차원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이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치권을 부여할 것이며, 어떠한

사회구조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말한다. 즉 정치·사회문화적 차이를 담지 한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본질주의의 비판과 정체성의 정치학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정체성의 정치학을 연구한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연구자 스튜어트 홀(1987; 1991)은 사회적인 실재(social realities)이자, 통치술(governing)과 담론들이 발견되는 주요한 장(fields)으로서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를 폭넓게 그려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그는 인종주의와 인종을 키워드로 서구와 특히 영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권력 작용들에 대항해서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학(new politics of identity, new ethnicities)’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종적인 절대주의(racial or ethnic absolutism)와, 그러니까 특정한 생물학적, 인종적, 그리고 민족적인 본질(essence)과 특성들을 당연시하거나 우선시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어떤 본질론에 기초하고 유기적으로 합체된 의미로서의 ‘정체성’이란 특정한 권력 작용과 제도적인 실행들 간의 접합과 사회를 구조화하는 힘들 사이에 형성된 산물이기 때문에 해체되고 경계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정한 인종 관련한 강력한 신념체계와 신화, 그리고 서사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정책과 제도망을 통해서 집합적인 대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국가와 미디어 그리고 교육제도와 같은 사회 권력의 역할에 비판적인 분석의 날을 갖다 대는 홀의 작업은 전술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맥락성에 민감한 그리고 대안적인 방식의 정체성의 정치학을 구현·상상하고자 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형성된 차이들과 소수자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정치학, 타인종과 소수자들의 삶과 존재 그리고 권리를 긍정하고,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공인(recognition)의 정치, 그리고 특정한 역사사회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의지들에 따라 조형되지만, 동시에 과정적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의 정치학이 홀의 작업 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그의 인종문제를 접근하는 (문화)정치학은 극단적인 문화적인 상대주의나 탈근대적인 문화론에 입각해서 무한히 분산되는 차이들로 구성된 정치학이나 전투적이거나 분리주의적인 인종의 정치학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홀이 주창하는 ‘정체성의 정치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차이, 자기반영성, 맥락 의존성, 혹은 역사적이고 국면적인 우발성(contingency)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Hall, 1992). 우선, 차이의 정치학은 근본적으로 이항대립을

거부하는데, 백인/흑인, 남성/여성, 정상/비정상, 중심/주변처럼 강력한 규범성과 담론효과를 동반하는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인종과 성을 둘러싼 본질주의의 전제가 되는 이항대립적인 개념의 해체를 시도한다. 둘째, 인종이나 집합적인 의미의 정체성이 맥락 의존적이라는 설명은, 사회문화적인 정체성(들)의 형성이나 출현이 특정한 사건이나 정치/역사적인 맥락에 의존하며, 개인이나 집단들의 정치적 입장은 고정불변한 것이 결코 아니고 권력 작용과 대항운동 등에 의해 구획되고 배치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각각의 시간과 상이한 조건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국면에 따라 차별화된 접합의 양상을 보인다. 즉 간단하게 풀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산되는 인종과 민족(성)을 차별화하는 차이, 인종이라는 기호의 사회적인 용례와 존재방식에 대한 자기반영성, 그리고 특정한 역사사회적인 국면과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인종이라는 기호를 둘러싼 집합적인 갈등과 투쟁은 특정사회 내의 지배적이고 대항적인 정체성(들)을 각기 형성해내는 주요한 동력들로 작용한다.

한편 의미화와 문화적인 재현을 포함하는 정체성의 영역 내에 차이와 기표들의 흘러내림에 의한 - 혹은 차연의 과정에 의한 - 의미의 무한한 연기가 이루어진다는 (극단적인 형식의) (탈)문화주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홀은 정체성은 어떤 특정시기에 완결된 듯 보여도 결코 확고히 정착된 것 또는 어떤 한 측거점에 고정된 것은 아니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임영호, 1996; 손유경, 2006, 223쪽). 따라서 그는 하나의 단일하고 균질적인 노동자 계급이나 흑인 공동체의 이미지와 이상에 회의를 표한다. 이 지점에서 홀이 주창하는 차이들로 형성되는 통일성(unity-in-differe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항구적이거나 연속적인 대상이 아닌 국면적으로 형성되고 안정화되는 동시에, 인종, 피부색, 계급성 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적인 차이들이 중층적으로 접합되고 구현되는 정체성을 뜻한다. 그는 또한 정체성은 유목적인 것,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존재하거나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Hall, 1987; 손유경, 2006). 모든 유형의 정체성은 어떤 구체적인 문화, 언어, 상징, 역사, 전통 안에 자리 잡고, 이들로부터 의도적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선택하거나 수용한 질료와 자원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작업은 특정 역사적인 국면과 정치적인 맥락과 이해관계에 의해 배치되는 특수성을 또한 담고 있다. 그는 진보적인 정체성의 정치라 해도 그것이 반드시 다른 정체성들을 향해 배타적으로 맞설 수 있거나, 도덕적인 우월성을 항상 유지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학은 고정적이고 항구적으로 형성되는 대립관계나

모순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배제나 투쟁의 메커니즘으로 규정되거나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Hall, 1988, 46쪽).

또한 홀은 정체성에 관한 자전적인 접근을 통해 카리브인의 문화와 영국 다diaspora 문화 내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국면들을 주요한 예시물로 들고 있다. 특히, 그는 ‘흑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역사·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부각시켰다. 우선, 홀이 제시한 ‘인종’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체로 피부나 눈동자 색, 머리 모양을 포함한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들과 관련된 개념이자 복잡하게 역사/상징적인 측면에서 형성된 문화적인 구성물(construct)이다. 그러나 인종성 혹은 민족성은 생물학적 차이나 속성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들의 조합을 통해 구성되는 표상인 것이다(Hall, 1988, 446쪽). 인종이나 나아가서 민족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흑인’을 피부색이나 색소 형성의 생물학적 담론과 인종적 기표(racial signifiers)가 형성의 주가 아닌, 역사·사회적인 국면에 따라 변화해 온 사회 내의 담론적인 ‘위치짓기’의 결과물이자, 흑인이라는 ‘열등한’ 주체로 주변화되었던 이들이 그러한 구조를 타파하려는 의지를 조직적으로 발현한 역사적인 성취가 불균등하게 맞물린 현상으로 접근한다(Barker 2000; Nash, 2000 참조).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홀은 ‘흑인’을 영미의 사회·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일례로 미국에서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s)’과 ‘블랙파워(Black Power)’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흑인이라는 의미는 열등하고, 야만적이며, 더럽고 지능이 낮다는 통념(common sense)을 매개로 사회 내에서 지배적으로 유포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민권운동가들과 시민들에 의해서 치열하게 반인종주의의 기치를 내건 저항과 집합운동들이 부상하고 연대를 형성하면서 흑인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의미는 급진적인 재의미화(resignification)와 재접합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흑인은 아름답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1970년대 ‘블랙파워’ 운동은 흑인을 피부색이나 생물학적인 담론으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호명하던 지배적인 인종담론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운동은 동시에 보다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그리고 전술적으로 대항적인 정체성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블랙팬더운동’을 포함한 반인종주의 운동가와 시민들이 이끌었던 실천적인 투쟁들 때문에 ‘흑인’이라는 기호를 둘러싼 위치짓기와 힘겨루기는 서구, 특히 미국에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인종을 둘러싼 담론망과 헤게모니의 장 속에서

중대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도 인종적 소수자들인 흑인들의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인식과 권리 수호가 지지를 받게 되면서, 어떠한티브 액션과 다문화주의 교육을 비롯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담론 지형 속에서도 제도적인 층위의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에서 기존의 명시적이고 은폐된 백인우월주의에 맞서는 소수자인 흑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전투적인 민족주의 혹은 ‘흑인중심주의’(Afrocentrism)를 강조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항담론과 운동들이 출몰했다. 이결과 한때 공고한 것으로 여겨지던 인종주의 질서 내에 파열이 일어나면서, 통합과 흡수 그리고 동화를 강조하고 동시에 인종을 구분·구획하는 특정한 권력 작용을 은폐해 온 정체성의 기제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차이에 입각한 정치학과 운동으로의 변화의 필요성과 동력이 그리고 소수자들 집단의 세력화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Kenny, 2004 참조).

특히, 그중에서도 홀은 주류 미디어와 같은 제도가 선택 또는 ‘표준화한’ 인종관계를 다루는 재현의 양식들을 통해서, 백인 우위의 인종질서는 자연화되고 (naturalization) 규범적으로 당연시되는 반면에,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영역 즉 주변(the marginal)은 열등한 것으로 재현되거나 조성된다는 점을 지적한다(Hall, 1988, 441쪽). 결국, 주류의 지배층이 제시하는 문화적인 재현과정 속에 흑인의 경험 및 정체성은 아예 부재하거나, 왜곡되고, 스테레오타입을 통해서 제시되기도 하고, 소수의 성공한 흑인 내지 사회적으로 가시적인 성취를 거둔 소수자들의 존재는 제도의 우월성을 표상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종정치와 관련한 재현의 정치학은 의미와 담론들의 생산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과정에 주목한다. 다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홀이 제시하는 정체성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학은 의지(political will)와 집합적인 행동으로 대항적인 정체성과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소수자 그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어떤 특정한 계급성이나 공감된 민족의식 혹은 인종적인 일체감을 최종적인 잣대나 결정적인 요인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처럼 인종과 정체성의 형성과 배치를 반본질주의적이고, 반근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온 홀은 이산 혹은 다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에도 주목한다: 다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 ‘diaspeiran’에서 나온 말로 ‘dia’는 경유 또는 관통을

의미하며, ‘speiren’은 씨를 산개시켜 뿌린다는 의미를 지닌다(손유경, 2006 참고; 김현미, 2005). 이러한 어원이 암시하듯이 다diaspora라는 정착이나 정주보다는 이동과 이주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되는 특정한 공간성과 경계성 그리고 관계성(in-betweenness)을 강조하는 전술적인 개념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산의 개념과 용례는 유대인의 경험을 독점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인종과 유민들이 경험해 온 집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동과 이민, 횡단(crossing), 그리고 탈주와 탈출의 과정과 경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홀은 미디어에서 담론과 미학을 가로지르는 분석과 개입작업 역시 이 개념을 기원, 순수, 토양, 본질(essence) 등의 지배적으로 배치되는 인종과 민족담론 속의 기호들과 결합되는 문화적인 본질주의와 식민주의 담론들을 비판하는 중요한 전술적인 기제이자 이론틀로 사용한다.

2) 국내 (미디어) 문화연구: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미디어

이와 같이 영미의 문화연구가 인종주의와 인종, 그리고 이산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틀에 대해서 취한 이론적인 작업과 문제의식과 비교할 때, 한국 문화연구 내에서의 인종과 이산 그리고 다문화주의 문제 관련 논의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매우 시론적인 수준이나 특정 차원, 예컨대 담론이나 미디어의 재현작용을 분석하는 수준에 주로 머물고 있다: 전규찬(1999)은 한국의 지식담론 속에서 “인종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나 실증적 [혹은 경험적인 층위의] 분석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전규찬, 1999, 121쪽). 이러한 문제의식이 발현된 이후, 최근 수년간 한국의 미디어와 문화연구의 영역에서는 몇 편의 논문들이 등장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 2세들의 소수자적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의 복수적인 단면을 질적인 방법론으로 포착한 김수정(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김성운(2006)의 하인스 워드 신드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시도한 인종정치학적인 연구가 있다. 또한 인종과 소수성의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이론적인 층위에서 점검한 이상길·안지현(2007)의 연구는 특정한 인종주의나 다문화적인 삶의 양태, 그리고 이산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사례들에 주목하지는 않았으나, 다문화주의, 소수자와 월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을 매우 정교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의철·이창호(2007)는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보도 분석을,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부상했던 혼혈인의 삶을 재현하는 미디어의 프레임들을,

“행사도움, 감동, 자성, 정책, 인권, 관심유도, 사회역사분석” 프레임 등으로 차별화시켜 고찰하고 있다. 전자가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서구와 한국의 문화연구 작업들을 비판적으로 조망했다면, 후자의 작업은 매우 미시적이고 미디어 재현에 한정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종의 문제가 미디어 스펙타클화되면서 급진적이거나 성찰적인 인종관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탈)맥락화하는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를 비교하면서 탐색한다. 윤선희(2006) 역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토픽 아래, 하인스 위드를 다루었던 국내언론과 방송의 보도를 중심으로, 인종문제에 대한 신화와 내러티브 분석을 포스트식민주의와 결합시켜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양정혜(2007)는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에 대한 주류미디어들의 보도 방식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일단 내적인 차이와 차별성의 무화된 집합적인 타자로 그려지면서 동시에 ‘동화될 필요가 있는 대상, 혼란을 겪는 대상,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즉 한국의 주류적인 관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객체화되고 있는 관행을 비판한다. 김영찬(2006)은 대부분의 미디어 보도에 있어서 객체화되고 있는,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미디어 활용과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운동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시도하면서, 타자들의 목소리와 체험을 일부 복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의 인종주의와 인종문제의 재현과정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이자 정의내리기로 묶을 수 있는 연구들은 언론학 내부에서는 아직 간헐적으로만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내의 다문화주의와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담론분석과 정책 혹은 제도와 실천적 차원의 연구를 결합시킨 후속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종주의와 정체성, 그리고 혼성성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을 제공하고, 질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미디어의 재현과정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내의 인종과 혼혈에 대한 시각과 감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인 텍스트 분석과 부분적으로는 인터뷰 자료 그리고 자기기술지를 사용했다. 본 연구는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매개로 확산되었던 인종관련 기사들 속에서 채택되는 키워드와 프레임들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했다. 특히 내러티브로 워드현상과 혼혈, 경계인의 삶과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엮어내는 미디어의 의미작용을 몇 가지 주제어와 텍스트 내의 의미 구성의 중요한 기제인(textual devices) 프레임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해독했다. 갬슨과 모딜리아니(1989)에 따르면 미디어 특히 저널리즘 관련 담론 속에 채택되는 프레임은 언론이 다루는 특정 이슈나 사건을 묘사, 해석, 은유하고 예시, 의미하는 기제를 지칭한다. 기틀린(1980)에 의하면 또한 프레임은 지배적인 이해관계를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실행하는 의미와 재현작용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질적인 연구방법에서의 프레임 방법론의 특징은 이미지, 언어, 상징, 내러티브 구조, 재현, 상호맥락성, 역사성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하고 있다(Devereux, 2007, pp.141~142). 이러한 맥락에서 주류 신문과 주류 방송에서 인종관련 문제들을 어떠한 관점과 톤 그리고 재현의 방식으로 제시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의 주요 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에서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들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4월 8일 사이에 실시했다. 기사의 추출은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KINDS를 이용하였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KIND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체 사이트인 조선닷컴, 조인스닷컴에서 추출하였다. 기사는 사실과 기고 등의 특정 주장이나 의견을 담고 있는 기사와 기획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했다.

<표 1>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다문화’검색어 관련 총 기사 수

구 분	조선 일보	동아 일보	중앙 일보	경향 신문	한겨레신문	세계 일보	문화 일보	한국 일보	국민 일보	서울 신문
검색어 다문화	26	30	15	53	61	67	50	39	84	42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인스 워드 방한 이후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총 기사 수는 <국민일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세계일보>, <한겨레신문>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다문화’ 관련 기사가 단지 30개 내로 그 수가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현재 방송 중인 KBS의 토크쇼<미녀들의 수다>, 시사교양프로그램<러브 人 아시아>, 농촌드라마<산너머 남촌에는>와 SBS에서 종영된 드라마<황금신부>, 오락 프로그램<사돈 처음뵙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 Only Comedy TV에서 방송 중인 토크쇼<월드 보이즈>에서는 어떻게 다문화를 재현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 다문화 관련 기사들 속의 사용된 주요한 프레임

1)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구별짓기와 수용하기

[서울신문, 2007년 9월 13일] <문화마당> 단일민족의 신화 넘어서기/ ... 우리 의식 속 깊이 깔려 있는 타자에 대한 깔봄이 인종주의에서 유발된 것만이 아님은 같은 혈통의 고려인, 조선인, 재일동포, 재미동포에 대한 서열화된 차별대우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은 분명 단일민족의 신화가 빚은 인종적 차별이 아니라 돈의 유무에 기반을 둔 인종과 문화가 다른 이들을 그들이 속한 사회나 국가의 물질적 풍요와 빈곤의 정도에 따라 내려 보고 올려 보는 것은 너무나 천박하다.

단일민족의 허구성은 이 외에도 사설, 기명칼럼 등 여러 형식을 빌려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단일민족, 순수혈통은 있을 수 없으며, 2005년 말 기준으로 통계에 잡혀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만 하더라도 이미 74만 명을 넘어 더 이상 한국을 단일민족 국가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러한 칼럼들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방향성과 깊이에 있어서는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2007년 8월 29일] <시론> 다인종.다문화 공생사회로 가는 길/ ... 최근 우리사회에선 소수인종 일부가 사회구성원으로 섞여 살아간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수천 년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혈통민족주의를 문제 삼는 건 지나친 지적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순수 혈통민족주의를 넘어선 ‘다인종.다문화 공존’이라는 문명사적 요구에 제대로 재처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지독히 혹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듯 상당수의 언론은 혼혈인은 물론 결혼이민자 등 우리 안의 타자들에 대해, 유전적 요인, 피부색 등에 의한 선입관을 벗어나고 인간이라는 하나의 주체로 볼 것을 요구했다. 같음과 다름의 공존은 곧바로 다름과 틀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혼혈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관습적이고 어의론적인 차원(semantic level)에서 혼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피가 섞여있는 - 단순한 다름 - 사실에 불과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의 혼혈은 ‘순수한 피’에 ‘더러운 피’가 섞여있다는 매우 부정적 뉘앙스와 더불어 혼혈인들에게 가해졌던 사회적인 차별의 역사를 배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보도 속에서 혼혈이라는 특정 용어와 의미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분적으로만 드러났다.

[문화일보, 2008년 3월 5일] <사설> 대학은 국사 수능 필수과목 약속 지켜야 한다/ ... 국사교육 강화는 일본.중국 등의 역사왜곡 사건으로 국민의 감정이 고조되는 동안만 강조할 일도 아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화하고 사회의 다인종화.다문화가 진행될수록 국사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사실은 대학 당국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각 대학은 미래세대의 정체성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7년 9월 4일] <이슈&테마> 다민족 사회/ ... 하지만 민족 정체성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세계화가 민족적 차별을 해소해 줄 수는 없으며 문화 다원주의란 이름으로 포장된 강대국의 문화가 고유한 민족 문화를 빠르게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양한 민족 문화가 제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나와 다른 상대를 포용하되 자기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

[세계일보, 2007년 10월 27일] <사설> “이중국적” 긍정 검토할 때 됐다/ ...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을 헤쳐나가고 다문화 시대의 다양성을 살리려면 이중국적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을 결집하고, 한국은 찾은 글로벌 기업인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업여건을 조성하자면 국적에 대한 개방적 사고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다.

한편 대표적인 보수 신문들로 꼽히는 <문화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세계화 시대 속에서 일본.중국의 역사왜곡 문제를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즉 세계화 시대 무한 경쟁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 정체성

강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대학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일보>의 관점은, 한국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다문화를 이용하자고 강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 간과해서 안 될 측면이 있는데, 인종과 계급, 생산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혈인들은 낮은 학력과 사회의 차별 덕분에 주로 수입이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도 몇몇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서 저임금 노동을 수행하거나, 각지의 음식점 등 열악한 수준의 노동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혈통적·인종적 배경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일 및 점유하는 계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김성윤(2006: 329쪽)은 혼혈인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하위직 노동을 전전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다. 이는 직업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인 노동자와 타자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생산관계에서의 적대양상이 인종적인 적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오경석, 2007 참고). 비록 하위직이나마 직업을 얻게 되는 혼혈인들은 감사해 할지 모르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세계일보>에서는 이중국적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변화를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중국적을 통해 글로벌 시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의 위선과 거짓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겨레신문, 2008년 3월 13일] <아! 한국사회> '다문화 사회'라는 거짓과 도전/ 한국사회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 담론이 유행이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주의'. 정부는 '다문화'라는 브랜드로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포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주민 정책의 대부분은 다문화 사회로의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혈통에 따른 국적 부여, 이중국적 불인정, 단기 순환과 정주화 방지, 가족 결합 금지 등 관련 정책들은 모두 혈통주의와 민족주의적 인식에 기대어 이 사회의 경계와 방어벽을 견고하게 쌓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에는 사실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의 구조화된 난관들은 혼혈인들을 반영구적으로 하위계층이나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이는

이들이 현실에 대해 좌절하고 도피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다시 그들을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하류층에 남겨놓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는 그들이 처한 실태를 잘 보여준다. 박경태(1999; 199~202쪽)는 혼혈 청소년의 중고교 중퇴율이 일반 학생의 6배가 넘으며, 이러한 저학력은 그들을 실업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혹은 질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거현황의 경우에도 전체 혼혈인의 6.5%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반인의 53.3%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혼까지도 쉽지 않게 만들어, 25세 이상 혼혈인 가운데 결혼한 비율은 30%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편부모 가정 또한 43.3%에 이르러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렸을 때 우유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 이유는 어린 마음에 우유를 계속해서 마시면 피부가 하얗게 된다고 믿었던 거죠”(이재갑, 2004; 404쪽 참조). 이러한 혼혈인들의 체험이 담긴 에피소드는 이 땅에서 백인 혼혈인과 비교해 이중의 차별을 받는 피부색이 짙은 이들의 현주소를 일부 시사해주고 있다.

결국, 순혈주의 타파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안의 소수자들을 대하는 정책 변화와 교육의 강화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거나 총론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만 그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드러냈다(오경석 외, 2007. 참조).

2) 인종적 오리엔탈리즘: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경향신문, 2008년 3월 29일] <한국에 살다보니> ‘선택된 다문화’는 싫다/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은 아직도 ‘희귀종’ 취급을 받는다. ... 후진국에서 온 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인과 선진국의 백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시선은 분명 다르다. 나에게 친구하자며 손길을 뻗는 한국인은 있어도 후진국 출신의 공장 노동자에게 먼저 친구하자며 손을 내미는 한국인은 드물다. 필리핀인이나 내가 똑같은 영어를 써도 한국인들은 내 영어를 정통이라며 부추긴다.

[세계일보, 2008년 4월 5일] <문화산책> 외국인에 대한 이중잣대 경계/ ... 외국인 문제는 이중잣대로 재단된다. 유색인은 백인계와 달리 엄격히 차별받는다. 서구의 백인문화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다. ‘어원지’형 미국 프렌들리는 세계화 시대의 살아갈 방향을 얘기한 예외라

치자. 문화의 서구화를 넘어 외모와 체형까지 서구화를 지향하는 인종적 열등감이 혼재한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바로 알아야 한다. 백인 입장에선 흑인이든, 노란 머리염색과 눈 수술한 황색인이든 모두 유색인으로 분류된다.

한국사회가 점차로 다인종.다문화 그리고 다종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피부색, 인종, 국가에 의한 편견으로 인한 배타성을 발견할 수 있다(박경태, 2001; 27). 이는 결국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인종.문화.언어.전통이나 종교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러한 인종적 차별은 또한 한국 내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TV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KBS의 토크쇼<미녀들의 수다>, 시사교양프로그램<러브 人 아시아>, 농촌드라마<산너머 남촌에는>와 SBS에서 종영된 드라마<황금신부>, 오락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사돈 처음뵙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 Only Comedy TV에서 방송 중인 토크쇼<월드 보이즈> 등이 있다. 우선, KBS의 토크쇼<미녀들의 수다>, 시사교양프로그램<러브 人 아시아>, SBS의 오락 프로그램<사돈 처음뵙겠습니다>, Only Comedy TV에서 방송 중인 토크쇼<월드 보이즈> 등 외국인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KBS의 <미녀들의 수다>는 단연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50만 명이다. 그 만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 중 외국인 여성들이 본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몸소 체험한, 각국의 외국인 여성 16명이 출현한다. 그들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인들의 현 주소를 재치 있는 앙케트와 토크로 풀어본다.” 이러한 토크쇼는 지난 2006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연일 화제를 쏟아내며 월요일 동시간대 프로그램의 시청률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시즌이 계속 진행될수록 외국인 여성 출연자들의 신변잡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출연자들이 미혼의 유학생이나 모델, 고소득의 직장인이며 대부분은 미모를 바탕으로 한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출연자들이 짧은

치마 등 선정성을 강조하는 스타일과 방송 카메라 앵글의 관음증적 처리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프로듀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청자들의 기호를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려는 것일 뿐이며 외모나 성에 대한 상품화 의도는 전혀 없다. 또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문화 간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는 처음부터 계속됐다.”

KBS의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SBS의 <사돈 처음뵙겠습니다>나 KBS의 또 다른 프로그램 <러브 人 아시아>도 선정성 논란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여성의 일상을 보여주거나 이들의 부모가 한국 시부모를 만나는 과정에서 은연중 구시대적 사회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 개개인의 고민과 애환을 담기보다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동남아 여성들’이라는 특정한 이미지에 가두고, 출신국보다 우월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아들을 많이 낳고, 일 잘하고, 시부모 잘 모셔야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와 미디어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개별적 주체가 아닌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시혜’의 대상으로 뭉뚱그려 정형화되고 있으며, 한국을 우월한 지위에 두는 위계적[서열적] 질서 안에 포섭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현실에 관한 성찰과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제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같이 비판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 주체인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젠더만의 차원이 아닌 “계급.인종.지위.연령.제도.체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SBS의 드라마<황금신부>는 일명 ‘라이파이한’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 문제와 가족 갈등의 이야기 구조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은 실제와는 다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를 신기해하며 욕심내서 마구 먹거나, 한국의 평범한 전기밥솥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주인공(진주)의 모습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즉 한국 드라마에서도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월의식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KBS의 농촌드라마<산너머 남촌에는>에서는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귀농가족, 국제결혼 부부,

코시안 가정 등의 새로운 구성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이 텍스트는 앞에서 설명한 <황금신부>보다 더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를 구체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가진다. <산너머 남촌에는>은 농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구 구성원의 변화를 땀땀히 그려내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농촌으로 온 베트남 신부(하 황 하이옌)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즉 한국 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잘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재현되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다문화주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거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상쇄시키고 있다. “즉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과 우리나라보다 뒤쳐진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배척 등 인종차별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특정 인종이나 문화에 대해 고정성을 고착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종이나 국적 민족성(ethnicity)과 관련이 있는 민감한 뉴스나 프로그램들은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표현방법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이혼율 상승과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정문제에 대한 보도가 생산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여성들을 ‘이국적 타자’로만 그려내는 <미녀들의 수다>가 계속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 여성을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러브 人 아시아>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뉴스 보도 못지않게 우리사회의 ‘인종의 정치학(politics of race)’을 직접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인, 한국인성(Koreanness), ‘한국인 되기’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의 투사나 성찰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바로 위의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세계화의 파도를 정치경제적인 층위와 함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실감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변화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찰 없는 대안은 미봉책에 그치거나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한국인성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없는 다문화주의는 이선옥(2007)의 말을 빌리면 ‘실체 없는 운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는 이주자(이주노동자)에 대한 하나의 관리 기제로 기능”할 뿐이며, 이는 결국 “이주민의

관리·동원·통합·배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문화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적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속인주의는 기본적으로 ‘혈통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순혈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주의가 기본적으로 동화정책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까다로운 국적 취득 요건 또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아직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은 대표적인 행정 편의적 시각인 동시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고 가사노동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주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등에 관련된 보도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사례로 삼아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모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이를 이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까지 함께 고려했다면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과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디어가 ‘제시할 수 있었던’ 대안들의 실천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를 비롯한 다문화주의를 위한 대책들이 부재하거나 혹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지점에서 원용진(2003)의 말을 들어보자:

이민정책, 귀화정책 등의 이주에 대한 공공정책의 양상을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민에 대한 비 실체적 태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시민권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주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주 노동자의 주변화와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도적 비결정성(non-decision)인 셈이며 정치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이로써 유입국 내부에서 국지적 인종주의, 차별주의가 성행하도록 하는 태도다. 두 번째 모델은 배타적 모델이다. 이는 이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민 유입국의 시민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귀화와 시민권 취득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주자와 유입국 사회 간의 공식, 비공식 문화교류는 불평등하고 소원한 관계를 이룬다. 세 번째는 공화국-제국적

모델인데 이는 혼성적인 형태를 띤다. 이 모델은 유입국에서 태어난 이주 2세대와 외국인 노동자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구식민지로부터 식민 모국으로 이주해 온 시민들에게 특히 해당된다. 마지막 모델은 다문화적 모델인데 토양적으로 이주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는 모델이다.

같은 글에서 원용진은 한국의 정책이 아직 비실체적이고, 배타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8년 3월에 개정·시행되고 있는 국적법이 과거에 비해 한결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요구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지적은 아직도 상당히 타당하다. 따라서 아쉽게도 미디어가 말하고자 했던 다문화사회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종합일간지라는 기본적인 특성상 학술 논문과 같은 수준의 깊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집기사에서 말하고자 했던 한국인 되기, 다문화주의 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제도·실천적 차원에 대한 고찰과 실천적 제언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의 가장 많이 다루어진 키워드는 주로 결혼이주자와 국제결혼, 그리고 해외 다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한국 내의 다문화 현상 중의 하나인 국제결혼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그 하나의 사례로 <한겨레신문> 특집기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1회와 2회의 경우, 탐방기와 르포의 형식을 빌려서 결혼이민자 주요배출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가 결혼이주자들은 누구이며 또한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결혼이주를 계획하고 있거나 한국남자와의 국제결혼 후 피해를 입고 다시 돌아온 여성들과 현지 영사관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상업화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8일] “16일 프놈펜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만난 스랭 나딘(가명)이라는 캄보디아 여성 …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라요. 남편도 외국계 기업에 근무한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했거든요. … 영사면접에서 남편의 이혼 경력을 처음 알았다고…”

그리고 3회부터 5회까지 총 3개의 테마가 모여 하나의 기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각 회마다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내 폐쇄된 순혈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2) 앞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만에서는 앞의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집기사는 여성인권대사인 강금실씨의 글로 마침표를 찍는다. 여기서 그녀는 국제결혼을 통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의 여성이나 이주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우리의 성격이나 스케일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 내의 다문화주의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축복인 것이다.

이처럼 <한겨레신문>의 특집기사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 이주 피해와 이에 따른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사기행각과 횡포를 고발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의 피해와 그들의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한겨레신문>의 특집은 오늘날 한국 사회 내의 다문화 가정의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가정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외국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기존 의 언론에서 다룬 자국 중심주의나 자녀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강조하는 것이 적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정부의 대책과 아시아 국가인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문화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정책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거의 공통적으로 전개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정혜(2007)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정부역할의 부각은 관련 부서나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주여성들의 삶이 기획되고 재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럴 경우 구체화된 해결책의 형태는 각종 감독과 같은 통제의 양상을 띠거나, 특정 라이프스타일의 습득과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훈육의 양상을 띠게 된다. 통제와 훈육 모두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적응방식이며 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자생적 생겨나는 서벌턴의 목소리는 아니다. ...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규범과 생활방식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들로서 그려진다.

즉, 언론은 항상 기득권을 가진 ‘우리’의 시각에서 ‘타자’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타자의 행위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겨레신문>의 특집기사 역시 이런 틀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못한 채 이주 여성들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언 및 대안부분에서, 특집기사는 한국내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수(라고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이 말짱 없이 성혼되어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 가정의 사회 내에서의 부분적이고 특수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등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 특집기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 중개업자들의 횡포와 같은 문제점들의 제시, 결혼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성들의 사례제시, ‘성공’한 결혼 이주 여성들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제시,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식의 큰 흐름은 여타 다른 신문사의 다문화 관련 기획기사 혹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던졌던 질문들과 다루어지는 형식 및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다. 또한, 이주여성들을 보호가 필요한 대상 그리고 동질적이면서 집합적인 타자로 제시하는 방식 역시 다른 언론사의 특집기사들과 유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양정혜(2007)는 홀파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주도하는데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미디어의 속성을 감안한다면(Hall, 1988) 국내 어떤 일간지를 분석하더라도 이들이 재현하는 이주 여성들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양정혜,2007).

반면, <한겨레신문>의 특집기사 특성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내의 폐쇄된 순혈주의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다 약 4~5년 전부터 본격적인 결혼이주자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한 대만을 직접 찾아가, 현지 관료 및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만의 결혼이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들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늘 논의되어왔던 원론적인 수준에서 - 초.중등학교에서 결혼이주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대학생 도우미를 활용하는 -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기사만을 바탕으로 <한겨레신문>의 소수자나 타자들에 대한 그간의 작업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이 한국 사회 내.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의 부끄러운 역사인 라이파이한 문제가 과거의 일만이 아님을 보여준 “라이파이한을 팔지

말라”를 비롯해, 한국 사회 내에서 일반인들과 보수적 기독교에 의해 이중으로 핏박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다룬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누구인가”, 해외동포.이주자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담아낸 “내게 한국인이냐고 묻지 말라” 등의 보도들은 비가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의 타자들에 대해 심층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조명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좋은 기사들이며, <한겨레21>의 이러한 노력은 평가 받아 마땅하다.

이상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대다수의 언론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론적이거나 주로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다루는 한계를 보였다. 미담의 형식이나 정서적인 차원의 수사학이 걸러지지 않고 남발되기도 했고, 당위적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즉 대다수의 언론들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타자들에 대한 관심을 시의성과 상품성만을 쫓는 방식의 상당히 좁고 한정적인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과 한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장르에 있어서도, 다양한 탐방기와 르포 그리고 혼혈인이나 외국인과의 결혼한 한국인 등의 주체들이 전면에서 나서는 인터뷰는 간헐적으로만 제시되었다. 사실과의 의견 기사의 경우,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논점들을 담고는 있으나, 지면 사정상 단순 문제 제기의 역할에 주로 치우쳤다.

V. 결론: ‘우리 안의 타자’들, 혼혈과 혼종성의 정체성 논하기

우선, ‘우리 안의 타자’들은 혼혈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사회적 소수자집단들을 포함한다. 인터넷 매체들은 여러 사회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그동안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소수자와 그들이 처한 문제적인 상황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 혹은 배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하면서 한편으로는 과편화되어 간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들의 존재성은 혼혈-이민자-소수자-타자 등을 가로질러가며 논의들이 미디어와 문화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즉 한국의 언론은 지나친 핏줄과 생물학적인 차원의 ‘한국인이라는 의미(Koreanness)’를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강조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하인스 워드의 방한은 주한미군의 문제와 한국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인 편견과 피부색 채국주의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동시에

다인종 시대의 단일민족의 신화성이 도전받고 있는 현 단계 한국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라는 문제의식이나 다국적 시민성의 문제가 내장하는 명암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이런 주제들과 관련된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적인 화두를 진중하게 던지는 좋은 기회일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언론과 나아가서 매체에 기고한 지식인들은 이러한 문제와 쟁점들을 매우 시론적이거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주로 다루는 한계를 보였다. 세계화와 이산(diaspora), 그리고 탈국가주의라는 과고가 점증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삶 자체와 사유와 상상력의 지평이 국경과 경계를 넘어 펼쳐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와 타자들이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경을 목격하는 것은 새로운 일도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언론은 이처럼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다문화적인 현실을 보다 입체적이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고 재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인스 워드로 대표되는 이산인 혹은 한국계의 외국인들에 관한 언론의 최근 보도 방식은 평균점 이하이며, 성급하게 내달려간 상업주의와의 타협은 언론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자문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변화하는 세계화 과정과 다인종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복잡한 방식으로 빚어내는 현재의 풍경 속에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동시에 인지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문화적, 인종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앞서서, 진중하게 그리고 성찰적으로 다루는 기획을 제공하는데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하인스 워드가 한국의 첫 번째 월드 스포츠 스타는 아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촉발된 논의들은, 기존의 스타성, 상업성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한국의 어두운 과거였던 혼혈인 문제를 포함해 민족, 인종, 정체성, 배타적 민족주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류 매체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인터넷 매체들은, 비록 그 영향력에서 일정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워드와 혼혈이라는 문제들을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젠더, 대미종속, 백인우월주의, 이주노동자, 하인스 워드 마케팅, 결혼이민자, 비정규직 등과 같은 다양한 방향성은 일견 매우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인종과 혈통을 둘러싼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연구 및 언론학 내의 인종주의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를 실행하면서도

개념정리와 이론적 고찰의 어려움, 그리고 질적인 연구와 양적연구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방법에 따른 고충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자면, 인종과 이산 그리고 혼혈과 혼성(성)을 주요한 키워드로 삼는 지식담론들 속에는 인종주의, 혼혈주의, 순혈주의, 다문화주의, 세계화, 정체성(한국인성 vs 타자성),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국가주의, 집합주의, 페미니즘 등의 다양한 개념과 이론들이 뒤섞여있으며, 이는 개념과 이론의 병목현상(bottleneck)을 조성한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 글에 답을 수는 없었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파일럿 스터디의 형식을 빌려 우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자문을 구했던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수와 연구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인종주의와 인종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론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소위 식자층에 존재하는 인종주의의 개념화 그리고 경험에 대한 상대적인 이해의 부족과 이론화작업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많은 이론들과 경험들의 충돌 속에서 아직도 수정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며, 동시에 한국적 맥락 속에서 인종을 둘러싼 계보학적 접근과 다양한 연구방법론, 그리고 제도적이며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다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 연구들을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라고 저자들은 판단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통권 90호, 29~53쪽.

금명자(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기봉(2006. 11. 10). 민족은 매일 결속하는 ‘의지공동체’, 『한겨레신문』, 18쪽.

김석수(200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새로운 시민 주체. 『사회와 철학』, 제1호, 78-108쪽.

김성윤(2006). 하인스 위드-인종의 정치가 시작됐다. 『문화과학』, 47호, 315~333쪽.

김수정(2003). 정체성들의 경합: 한인 2세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우위성. 『언론과 사회』, 11권 3.4호, 144~185쪽.

(2007a).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통해』, 2007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b). 『‘우리’안의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담론』, 2007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영명(2002). 세계화와 민족주의: 약소국 시각의 정립 방법.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367~384쪽.

김영찬(2006). 이주노동자 미디어의 문화정치적 함의: ‘우리 안의 아시아, 아시아 안의 우리’, 『방송문화연구』, 제 18권 1호, 37~59쪽.

김예란 외(2005). 한국의 사회적 약자 관련 보도 현실: 언론인들의 자기 성찰적 평가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 통권 21호, 63~103쪽.

박경태(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박경태. 장수현(2003).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조사분석 03-12).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박노자(2002). 한국적 근대(近代)만들기 I: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는 어떻게 정착되었는가, 『인물과 사상』, 1월호, 162쪽.

(2002). 한국적 근대(近代)만들기 II: 인종주의의 또 하나의 얼굴 - 일제시대 의 범아시아주의. 『인물과 사상』, 2월호, 141쪽.

박노자 외(2003). ‘국민’이라는 이름의 감옥: 구한말의 국민 담론을 중심으로. 강수 돌 외 (편), 『탈영자들의 기념비』, 서울: 생각의 나무, 14~33쪽.

안민석(1998). 스포츠 영웅의 구조기능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0호, 157~178쪽.

앤서니 패그덴. 한은경 (역)(2003). 『민족과 제국』. 서울: 을유문화사.

양정혜(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7호, 47~77쪽.

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 (역)(2001). 『민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오경석 외 (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용진(2003). 아직 아시아를 말할 때가 아니다: MBC TV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래밍/텍스트』, 제 8호, 195~206쪽.

이동후(2006).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아시아: ‘우리 안의 아시아, 아시아 안의 우리’. 『방송문화연구』, 제 18권 1호, 9~35쪽.

이상길. 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제 51권 5호, 58~84쪽.

이상철(1998). 월드컵의 스포츠 상업주의와 민족주의. 『동서언론』, 제2집, 3~21 쪽.

이선옥 외(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81~107쪽.

이연정 외(1999).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심영희 외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서울: 나남출판, 21~42쪽.

이재갑(2004), 혼혈인 -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 『부끄러운 미군 문화 답사기』, 다큐인포, 북이즈, 404~414쪽.

이한구(2005). 닫힌 민족주의에서 열린 민족주의로. 『철학과 현실』, 제67권, 6~14쪽.

임영호(2002). 텔레비전 오락물에 나타난 내부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정체성 구성: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의 텍스트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576~605쪽.

임영호(2002).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서울: 한나래.

임지현. 최정무. 이 한(1999). <특집/좌담> 우리 안의 파시즘2: 억압과 규율에서 자율 과연 대로-역사와 일상의 변혁, 다층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당대비평』, 70쪽.

장미경(2005). 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권 6호, 9~82 쪽.

전규찬(1994). ‘黑’의 문화 구성과정을 둘러싼 담화정치. 『언론과 사회』, 제4호, 81~100쪽.

전규찬(1999). ‘인종’의 한국 문화연구 내 배치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12호, 99~136쪽.

(2001). 인종주의의 전지구적 형성과 미디어 연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9권 3호, 73~105쪽.

정의철.이창호(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스 워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84~110쪽.

정현숙(2004).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2권 3호, 27~45쪽.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2006). 『지금 스튜어트 홀』. 서울: 엘피.

피에르 부르디외. 문경자 (역) (1984).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서울: 숲.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157~193쪽.

홍숙영(2007), 외국인에 관한 TV 담론과 다문화주의,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22집, 281~300쪽.

2. 외국 문헌

Balibar, E. (1989). Racism as Universalism. *New Political Science*, 16/17, pp.9~22.

Banton, M. (1987). *Racial the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ker, C. (2000).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Bourdieu, P. (1998). *On television*. (P. Parkhurst, Trans.). New York: The New Press.

Carew, J. (1988). Columbus and the origins of racism in the Americas. *Race & Class*, 26(4), pp.1~57.

Clegg, S. (1988). Theories of racism. *International Socialism*, 2(37), pp.92~117.

Devereux, E. (2007). *Media Studies*. London: Sage.

Gamson, W. and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pp.1~37.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rossberg, L. (1997). *Bringing It Back Home: Essays on Cultural Studie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343~373.

Hall, S., Dorothy Hobson, Andrew Lowe, & Paul Willis(1980).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Hall, S. (1987), 'Minimal selves', in *Identity: The Real Me*, ICA Documents 6, pp.44~46.

. (1988). 'New ethnicities', D. Morley, K. Chen (eds),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e Studies*. London: Routledge, pp.441~449.

. (1992)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S. Hall et al. (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Polity. pp.273~326.

. (1993). 'Culture identity and diaspora', in P. Williams and L. Chrisman (eds), *Colonial Discourses and Post-colonial Theor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pp.392~401.

. (1997). "Old and New Identities, Old and New Ethnicities." *Culture, Globalisation and the World-System: Contemporary Conditions for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Ed. Anthony King.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pp.31~68.

John Hartley, Martin Montgomery, Elinor Rennie, & Marc Brennan (2002). *Communication, Cultural and Media studies*. London: Routledge.

Kate Nash (2000). *Contemporary Political Sociology: globalization, politics and power*. USA: BLACKWELL.

Kellner, D. (2003). *Media Spectacle*. London: Routledge.

. (2004). 911, Spectacles of terror, and media manipulation: A critique of Jihadist and Bush media politics. *Critical Discourse Studies*, 1, pp.41~64.

Kenny, M. (2004). *The Politics of Identity*. Cambridge: Polity.

Kline, K. N. (2006). A decade of research on health content in the media: The focus on health challenges and sociocultural context and attendant informational and ideological problem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pp.43~59.

Held, D. (2000). "Introduction." in David Held and Anthony McGrew (eds), *The Global Transformation Reader*. Cambridge: Polity Press, pp.51~120.

Miles, R. & Satzewich, V. (1990). Migration, racism and 'postmodern capitalism'. *Economy & Society*, 19(3), pp.334~358.

Miles, R. (1989). *Rac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Lester, E. (1992). The AIDS story and moral panic: How the Euro-African press constructs AIDS.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2, pp.230~241.

Rex, J. (1986). *Race and ethnici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